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아베문주인 安倍文殊院

7세기 창건

지혜의 부처 '문수 보살'이 본존이다. 일본 3대 문수 보살로 알려져 있다.
지혜의 신이라 알려져 있어, 합격을 기원하러 오는 수험생이 많다. 1300년 이상 서민의 신앙을 모으는 절이다.
7세기의 고분부터, 중세 이름의 조각, 현재의 불당까지, 다양한 시대의 것들이 경내에 점재 되어 있다.
이 절에서만 가능한 체험도 있다. 이 곳을 방문한다면, 절대 놓치지 말 것.



킨카쿠 우키미도와 시치마이리

金閣浮御堂と七まいり

1985년 건축

이곳에서 출생한 아베 일족의 참배를 위해 지어진 금색의 불당.
안에는 귀중한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배관 시간	9:00-17:00
배관료	A 본당 토카이 문주 보살상 (말차·과자 포함) 어른 700엔 초등학생 500엔
	B 킨카쿠 우키미도 레이호칸 (시치마이리 기도표·부적 포함) 어른 700엔 초등학생 500엔
	A+B 어른 1200엔 초등학생 800엔
가는 방법	사쿠라이역에서 도보 20분 또는 버스로 7분, 190엔
	버스정류장 사쿠라이역 남쪽 출구 사쿠라이시 커뮤니티 버스 순환선[남] 7분 버스정류장 아베문주인 도보로 금방 아베문주인 ※버스는 약 1-2시간에 1대밖에 없으니 주의할 것.
관람 소요시간	1시간-2시간
주소	나라현 사쿠라이시 아베 645(奈良県桜井市阿部 645)
전화	0744-43-0002

토카이 문주 渡海文殊

국보 1203년 건축

사자를 탄 문수 보살상과 4명의 협사.
5점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카마쿠라 시대 (1185-1333)를 대표하는
불상 조각사 가이케이에 의해 조립되었다.
높이 7m, 일본 최대의 문수 보살상이다.



말차와 화과자

본당에 들어가면 말차와 화과자 대접을 받는다.
평온한 절 안에서 마시는 말차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치마이리 기도 七まいり

액마이 의식 "〇〇가 없도록~"(예: 병이 없도록~) 기원하면서 우키미도(浮御堂)를 한 바퀴 돌고, 기도표를 한 장 넣는다. 이것을 7번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절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꼭 한번 체험해 볼 것.



문주인 니시 고분 文殊院西古墳

7세기 축조

국가 지정 특별 사적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고대의 무덤 석실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아베테라(安倍寺)의 창건자인 아베노 쿠라하시마로의 묘라 전해진다.

부처의 자비로움이 주위를 감돌다

쇼린지 聖林寺

8세기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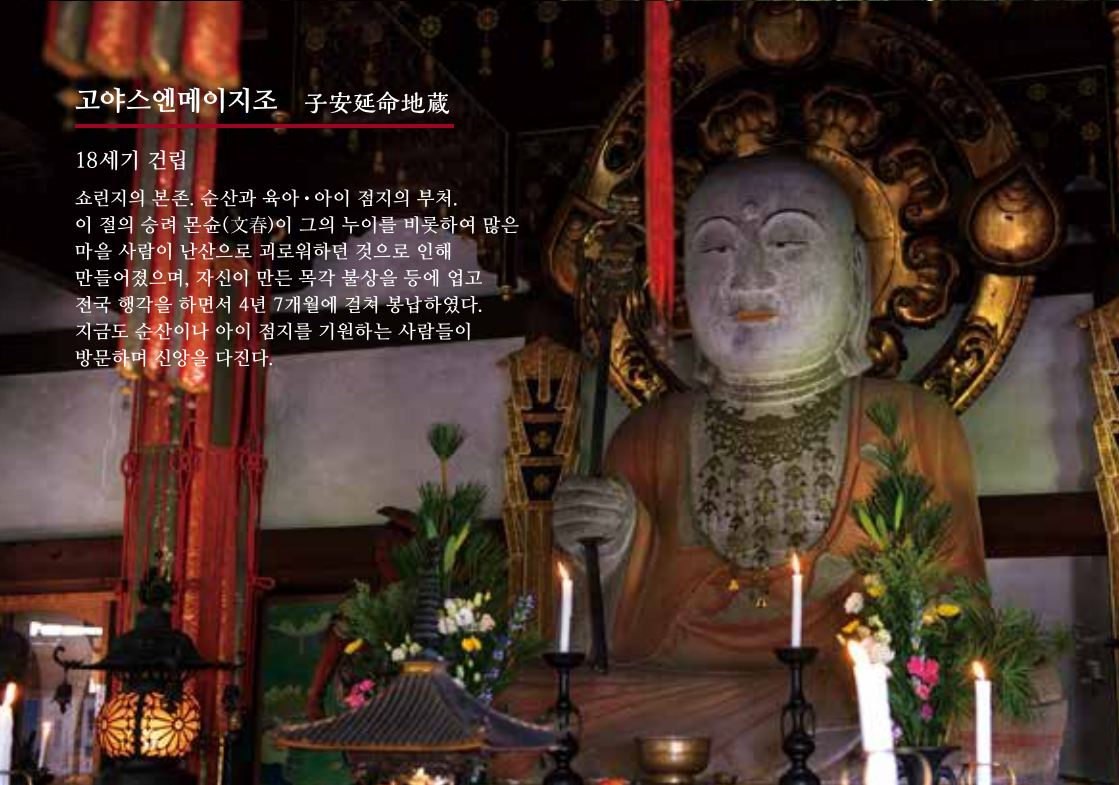
사쿠라이 마을을 벗어나 고지에 세워진 조용한 절.
산 사이로 미와야마를 바라볼 수 있다.



고야스엔메이지조 子安延命地藏

18세기 건립

쇼린지의 본존, 순산과 육아·아이 점지의 부처.
이 절의 승려 문순(文春)이 그의 누이를 비롯하여 많은
마을 사람이 난산으로 괴로워하던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으며, 자신이 만든 목각 불상을 등에 업고
전국 행각을 하면서 4년 7개월에 걸쳐 봉납하였다.
지금도 순산이나 아이 점지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며 신앙을 다진다.



배관 시간	9:00-16:30
배관료	400엔 ※11월에 한해 "만다라전" 개최로 500엔
가는 방법	사쿠라이역에서 10분, 운임: 230엔 버스정류장 사쿠라이역 남쪽출구 → 사쿠라이시 커뮤니티 버스 도노미네선 8분 → 버스정류장 쇼린지 → 도보로 금방 → 쇼린지 ※버스는 약 1시간에 1대뿐이니 주의할 것.
관람 소요시간	30분-1시간
주소	나라현 사쿠라이시 시모 692(奈良県桜井市下 692) 전화 0744-43-0005



십일면관음상

十一面觀音

국보 8세기 제작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온화함을 가진
불상. 많은 미술가가 절찬하는 불상이다.
일본 조각 역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여겨진다.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으며, 정숙함 속에 천천히
불상과 마주할 수 있다. 한때 미와야마에 있었던
다이고린지(大御輪寺)의 본존이었다.
메이지 시대가 되고, 신불분리·폐불훼석
(불교적인 것을 파괴하고 승려의 특권을
없애는 것)의 바람이 불어 불상은 1868년에
이 지역에서 철수되었다.
일본의 국보 제도가 발족되고 나서
제1차 국보로 선정되었다.
이때 지정된 국보 불상은 고작 24좌에 불과하다.

일본의 역사를 바꾼 진흥빛 신사

단잔 신사 談山神社

7세기 창건

산속 깊은 곳, 마치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것 같은 곳에 이 신사가 있다.
일본의 역사를 단숨에 바꿔버린 쿠데타 '율사의 변'(645년) 담합이
여기서 행해진 이유도 이 장소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내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조로 된 십삼중탑[十三重の塔] 등,
중요 문화재가 17점이나 늘어서 있다. 신사라기보다는 우아한 요새 같으며,
이곳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숫구친 피를 뒤집어 쓴 듯한 새빨간 건물과 단풍이 아름다우며,
단풍의 명소로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
닛코토쇼구(日光東照宮) (토치기현, 세계유산)의 모델로서 알려져 있다.
산 속에 남아있는 우아한 건물과 그 엄숙한 분위기를 즐겨볼 것.





을사의 변 乙巳の変 (645)

7세기 전반, 조정의 지배자였던 소가(蘇我) 일족의 횡포가 극도로 심하여, 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후지와라 가타마리는 왕자인 나카노오에 황자를 동료로 끌어들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결과, 소가 일족은 멸망하고, 이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를 세워 일본의 변역을 구축했다. 이 신사는 을사의 변의 공로자인 후지와라 가타마리가 모셔져 있다. 일본의 유명한 귀족인 후지와라씨(藤原氏)는 그를 조상으로 두고있다. 후지와라씨는 이후 약 400년간 일본을 지배하며 1200년간 일본의 유력한 귀족으로서 존재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에도 막부를 열어 400년간 일본을 지배했다)는 후지와라 가타마리를 존경했었기 때문에, 이 신사를 모델로 닛코토쇼구를 건립했다.

배관 시간	8:30 - 16:30
배관료	어른 600엔·초등학생 300엔 사쿠라이역에서 버스로 30분 / 운임요금 490엔
가는 방법	버스정류장 사쿠라이역 남쪽 출구 사쿠라이시 커뮤니티 버스 도노미네선 25분 버스정류장 단잔진자 도보 5분 단잔 신사
관람 소요시간	1시간~2시간
주소	나라현 사쿠라이시 도노미네 319(奈良県桜井市多武峰 319)
전화	0744-49-0001

Origin Of Japanese Entertainment

— 일본 예능의 발상지 —



즈치부타이 土舞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일본 서기'에 의하면 612년, 그 시대의 세력자였던 쇼토쿠 태자가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해학적인 가면극을 이곳에서 소년들에게 가르쳤다고 쓰여 있다. '즈치부타이'는 일본 최초의 국립 극장으로서, 국립 극장 연구소도 병설되어, 일본의 예능 문화 발전의 장이었다. 역사에 대한 경의를 품고, 지금도 이곳에서 음악 콘서트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단잔노 談山能

노가쿠를 집대성한 칸아미·제아미 부자의 본거지로서 중요시되어온 단잔 신사에서는 매년 5월 중순에 경내에서 노가쿠가 봉납된다. 노가쿠가 생겨난 당시를 체험할 수 있다.



노가쿠 能楽

즈치부타이에 전해진 기악(伎楽)은 조정의 보호를 받아, 주로 귀족 앞에서 행해져 왔다. 8세기 말에 조정의 보호로부터 멀어지자, 신사나 절, 길거리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농민의 예능과 민중 사이에 토착된 기예를 융합하여 일본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다. 14세기 중반에는 '야마토 시자(大和四座)'라고 하는 4개의 유력한 극단이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의 전통 가무극의 주요 계파인 호쇼류(宝生流)의 기원인 토비자(外山座)는 단잔 신사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무나카타 신사[宗像神社]에 호쇼류 발상지의 비석이 있다. 유우자키자(結崎座)의 칸아미와 제아미 부자는 노가쿠를 보다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칸아미는 기존의 유머 중심이었던 것에 음악이나 춤 등을 도입하여, 아름다움을 승격시켰다. 또한 제아미는 무겐노(夢幻能)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극을 완성했다. 죽은 사람의 시선으로 세계를 이야기하는 형식은 노가쿠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현대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노가쿠는 2008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무형 문화 재산에 등록되었다.

간제류(觀世流)의 발상지 유우자키(結崎) 觀世流発祥の地 結崎

하늘에서 가면이 떨어져 내려, 칸아미는 그 가면을 쓰고 장군 앞에서 춤을 추며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곳 가와니시마치 유우자키(川西町結崎)는 칸아미가 집을 짓고, 노가쿠를 널리 알린 곳이다.



멘즈카 (간제류 발상지 기념비)